

중보는 우리문중의 사적과 역사 그리고 일가분들의 소식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일가분들까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東右, 秀東, 弘周,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64 회산빌딩 403호  
전화 323-6223 아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 새로운 跳躍을 위하여

### 大宗會長 廉珪澤

일가 여러분 그 동안 안녕 하시고 家內 두루 康安하시오 지요.

'96년 봄에 大宗會長職을 맡고 벌써 반년의 歲月이 지났습니다. 重責을 맡고는 늙고 힘 없는 사람이 先代會長님들의 눈부신 업적을 어찌 이룰까 하고 두렵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全宗人의 뜻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소임이라 생각하고 힘을 다할까 하오니 여러 일가분들께서도 힘껏 도와 주시고 大宗會發展을 위해 忌憚없는 忠告와 좋은 意見들 자주 주십시오.

되고 만다고 봅니다.

우리 大宗會는 한 사람의 名譽나 特定계층의 利益을 爲한 모임이 아니라 같은 핏줄의 일가가 모여 先祖님의 유덕을 기리고 父母님을 비롯한 어른을 正성껏 모시며 어려운 世上을 서로 도와 슬기롭게 生活한다는 목적을 가진 순수한 家族的 모임입니다. 때문에 우리 大宗會는 서로 溫情으로 和睦하고 至心으로 서로 돕는 正신이 最大綱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大宗會가 시작된 지금까지 '86년의 大同譜 편찬을 시작으로 忠敬書院의 건립과 나주, 강화의 設壇과 오랜 宿願이던 永川의 宰相公산소 淨化事業등 刮目

지라도 불우한 이웃을 돕고 父母님을 비롯한 先祖님들의 유덕을 기리는 理念을 간혹 宗教的인 차이와 관습의 이질성 때문에 方法은 변형될 수 있을지라도 世界 어느 地方이나 古今을 通해 萬古不變의 人間的인 根本理念이니 마치 우리 大宗會에서도 공동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大宗會의 이러한 사업을 위해 活動의 據點이 되어야 할 恒久的인 事務室도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運營을 위한 經費가 있어야 함도 勿論입니다. '96년봄 定期總會때의 今年豫算內容을 보면 現狀유지차원의 最小限의 支出總額이지만 그나마 수혈을 하지 않으면

들에게도 弘報하시어 원만히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룩한 장엄한 塔 보다는 많은 사람의 正성으로 이룩된 塔이 더 빛나는 것인 만큼, 全宗人의 참여와 正성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간의 일가분들은 참여도 하지 않은 立場에서 宗親會란 돈만 거출하는 모임이라고 斷言해 버리는 예도 보아왔고 왜 地域間的 均等한 발전은 생각지도 않는가 라는 등의 여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 大宗會가 창설된지 16성상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獻誠金을 받아 거출

建設的 非難만 하고 모두가 肯定하는 대책을 提示하지 못했다면 그 忠言은 모임에 害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大宗會가 굳건한 기반을 세우고 步武당당한 發展을 하려면 宗人 각자는 大宗會가 지금껏 나에게 어느만큼의 利益을 주었는가 라는 近視眼的 打算을 해보기에 앞서 내가 大宗會 發展을 위해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를 自省해 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도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다시 분발하여 한 데 모여 뜻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서로 도와 성공리에 일을 成就해서 협해가기만 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私的인 모임이나 公的인 團體를 막론하고 모든 組織體의 圓滑한 運營을 爲한 가장 重要한 要素는 構成員의 誠實한 參與와 和睦에 있다고 봅니다. 整然한 規則이 具備되고 넉넉한 財源이 있다하여도 構成員이 和睦하지 못하거나 獻身的 參與를 하려들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發展하지 못 할 것이고 또 社會적으로나 個人을 위해서나 百害無益한 存在가

할 만한 업적을 하고도 또 앞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까. 불우한 일가를 돕고 後孫들 育成을 위한 장학 사업도 하고싶을 뿐만 아니라 各地域에 散在해 있는 先祖분들의 祠宇齋閣들을 保全하여야 함은 勿論 每年의 享祀도 원만히 恒久的으로 奉行할 수 있는 方法도 지금의 우리 世代에서 기틀을 잡아놓아야 할 課題입니다. 이러한 課題는 價値觀이 多樣化된 現代라 할

不足한 實情임을 알 수 있습니다. 唯一한 財源인 大宗會 運營基金도 物價高와 利率率의 減少로 基金의 利子收益만으로는 現狀運營도 못하는 實情이라 부임초에 基金의 추가 모금이 급선무임을 알고 그 當爲性을 說明하며 여러분의 協助를 구하는 發議文을 우선 任員여러분께 發送한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급히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웃 일가분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成就한 실적은 있어도 목적이외로 성금을 낭비한 예는 없었다고 보며 또 모든 사업에는 순서가 있듯이 宗人이 상의해서 사업의 순서와 기모를 합의해서 성사시킨 사업은 있어도 사업구상을 한지역에 편중시킨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의사가 진단만 하고 처방이 없다면 患者에게 그 의사는 病을 더해주는 결과가 되듯이 한 마디의 忠告도 非

세상살이에 슬기를 모아 힘차게 跳躍하는 活力素가 되게 하고 지금의 우리 기성世代가 이렇게 모범되게 생활했다는 흔적을 後孫들에게 사랑으로 傳하여 우리 일가의 빛나는 傳統을 계승토록 합시다.

여러분 健康하실 것과 家庭에 萬福이 함께 할 것을 祈願합니다.

(1996년 菊秋에)

## 199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96. 3. 30(토요일) 11:15분에 서울 마포에 있는 대종회 사무실에서 '96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1. '95년도 회계결산안 승인

(2면 참조)

2. '96년도 예산안 확정

(2면 참조)

3. 감사·공로패 수여

대종회 회원일동이 6개년 간 회장직을 수행해 온 在熙 회장에 대해 임기중 공로를 찬양하여 감사패를 庚桓고문에 의해 수여되고 총무 宗桓에 대한 공로패가 會長에 의해 수여되었다.

## 大宗會 소식

임기가 만료된 전 임원이 개선되었다.(개선된 임원명단)

會長 珪澤

副會長 昌勳 在均 鍾建 廷薰 吉榮 琦燮 炳斗 相顯  
得洙 東暻 德洙 洪燮 宇權 弘周 東鎮 洪太  
敏燮(도우사겸무) 宗桓(상임이사겸무)

監事 相守 秀東 東弼

理事 東右 東浩 東根 圭三 尙述 洛元 峻台 東秀  
京根 燉鎬 學光 車澤 泰模 圭顯 基榕 泊均  
鍾洙 南燮 亨英 秀一 相天 正水 賢植 殷植

三烈 英哲 英燮 喆浩

(이상 정관 8조에 의한 선출)

顧問 泰勳 基奉 在熙 仁洙 庚桓 泰權 普鉉

諮問委員

曾順 澤龜 鴻武 吉燮 弘喆 公勤 鳳哲 命秀  
聖壽 鍾顯 且祚 在郁 權翊 忠郁 昌賢 仁必  
熙澤 昌勳 能洙 澤根 燉燮 圭昌 英鎮 文圭

(이상 정관 10조에 의한 추대)

## 기타단신

1. 파주염씨 지역총친회 운영세칙

대종회 정관 제3조(지역총친회) 및 제16조(지역총친회 조직세칙)의 규정에 의한 운영세칙안을 입안하여 각지역회 및 임원에게 배부하여 각 의견을 수렴한 후 '97년 임원회 및 총회에서 토의후 결정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좋은 의견 있기를 대종회에서 바라고 있다.

2. 대종회 운영을 위한 기금 추가모금

대종회에서는 '96. 7. 1부로 기금 추가모금을 위한 취지문을 작성하여 각지역과 임원들에게 배부하고 방문하는 등으로 기금 추가모금을 하고 있으니 파주염씨 전국 일가께서는 취지문을 보시고 액수에 마음두지 마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

3. 문중제행사 일정('96년도)

영천도선산묘제 '96. 11. 13 수요일(음 10. 3)  
나주사단 단향 '96. 11. 15 금요일(음 10. 5)  
보령수현사 향사 '96. 10. 27 일요일(음 9월중 丁일)  
대덕효평사 향사 '96. 11. 24 일요일(음 10. 14)  
보성청계영상 향사 '96. 11. 26 토요일(음 9. 15)

# 高麗末葉의 우리 先祖분들과 禪僧

우리나라에 佛敎가 傳來된 것은 고구려 小獸林王 2年(서기372) 中國의 前秦王 符堅이 使臣과 順道스님을 통해 佛法이 고구려에 傳해진때를 第一번저로 보고 있다. 이때를 前後해서 中國으로부터 百濟, 新羅에도 佛敎가 傳해져서 三國時代에는 三國이 다 佛敎文化를 꽃피웠던 時代이다.

이후 後三國을 거쳐 高麗에 와서도 佛法의 가호에 의해 建國되었다고 믿는 太祖王建은 卽位元年부터 高麗에 귀의하여 佛敎옹호에 힘써서 在位中 500여의 寺院을 세웠고 3500여의 선원, 총림 답과를 일으켰다. 癸卯26年 4월에 죽음을 앞에두고 大臣 朴述希에게 訓要十條를 주어 후대의 王들에게 보배로 삼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라(中心藏之四字 嗣王相傳爲寶)하였는데 그 첫째에 國家의 王業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佛敎寺院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佛道를 닦음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도록 하라...(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

繁昌하여 國敎로서 全國民이 深信하게 되는데 그 中에서도 中始祖님의 祖父되시는 忠靖公께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國寶 第100號인 南溪院 7層石塔을 王命에 의해 세우셨고 그 基壇部에서 發見된 法華經 7冊의 追記에 忠靖公의 王族과 廉門일가를 爲한 祝願文이 지금까지 傳해지고 있다. 忠靖公께서는 興法佐理功臣으로 都僉議中贊의 宰相벼슬로 致仕(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시고는 곧 祝髮하시고 중이 되셨다는 記錄이 고려사에 傳해진다. 이와같이 高麗末葉에 佛敎와 우리 坡州廉門의 先祖분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記錄들이 있는데 中始祖님의 활동이 현저했던 시기를 전후한 이 시기에 高僧이었던 太古普愚國師와 懶翁慧勤王師의 語錄을 통해 그 자취를 알아보려한다. 太古스님(1301~1382)과 懶翁스님(1320~1376)에 關한 소개나 行狀에 對해서는 여러 佛敎서적이거나 高僧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略하기로 한다.

않으니 구태여 그대와 말로서야 어찌하겠는가. 한 생각 일어나기전에 화두를 들어 위음왕불을 밟으면 벌써 진면목은 저쪽이리니)

또, 贈廉侍中(염시중께 드리는 글)에서는

至尊至貴—高賢  
垂訪林間貧道人  
今日降尊何所爲  
生生與我共修真

(지금히 존귀하고 높으신 현인이 숲속으로 빈도인을 찾아왔네. 오늘 존귀한 몸 어찌 오셨는가. 오래도록 함께 도를 닦기 위함이라.)

懶翁스님은 二題의 글을 忠敬公先祖님께 드리는데 先祖님을 對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후일 懶翁스님이 돌아가시고 禍王5년 己未(1379년) 5월에 세워진 驪州神勒寺 普濟禪師 金利石鐘碑文에 보면 檀越(시주) 첫머리에 曲城府院君 廉悌臣이라는 諱가 明記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두 분은 格別한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글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대의 高僧으로 王師인 스님

聖人을 대하는 호칭이다)이라 忠敬公을 칭하고 王師쯤 되는 高僧이 자신을 낮추어 貧道人이라 하며 찾아준 걸음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비유되는 降尊으로 표현하고 함께 眞理를 닦자는 말로 미루어 당시 忠敬公의 사회적 위치와 국민들의 信望과 佛敎에의 信仰의 깊은 정도를 알 수 있다.

또, 스님은

示知申事廉興邦(지신사염흥방에게 주는 글)에서(拔萃) 公妙年 登高第 遇知今上 事務煩劇之時又向此箇門中的 信無疑要求修心方便----更莫別求--- 曾爲公說是箇什麼 話頭一判斷公事時 上前進退時 把筆作書時 畢竟是箇什麼.一身心如一寤寐一般..... 始知不改官職 不改俗形..... 天下善知識傳不到說 不及底 本有之事也

(공은 젊어서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님을 만나 사무가 번거로운때도 불문에 와서 의심없는 수심방편의 길을 물으시니..... 그저 따로 구하지 마십시오..... 공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인가...의 話頭를 들어 공무를 처리할 때

게 될 것 입니다.)라고 간절극진하게 글을 주었다.

이와같이 스님은 당시 知申事(三司從四品) 벼슬에 있는 東亭公先祖님에게도 위 글로서 佛道를 묻는 東亭公께 “이것이 무엇인가”의 화두를 들면서 一切處一切時 切莫放捨(언제 어디서나 버리지 말고)하며 參求하면 누구도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佛道의 진면목을 了解할 것이라고 說法하였다.

太古모스님은 偈頌에서 今知申事 相國興邦求弓 以理菴稱之 仍說偈證之 惟相國明鑑有何則宜動喚來 識莫測 智不到包藏乾坤 貫穿今古 天然先天成 四面沒門戶 崖崩澗絕夕陽紅花落花開幾朝暮(全文中 拔萃)

(지금 知申事 相國 廉興邦이 弓을 求하기에 “理菴”이라 짓고 이어 그 뜻을 밝히니 살펴보고 생각이 있으면 큰 출세하고 오시오. 하면서 偈頌으로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고 천지를 휩싸고 고금을 깨어 뚫으니 “理”는 하늘보다 먼저 되었고 사방에는 문이 없다. 무너진 언덕 시냇물도 끊긴 곳에 석양이 붉었는데

力 故創禪教寺院 差遣住持 焚修便各治其業云云……)고 하고 동년 5월 丁酉日에 대신인 廉相, 王規, 朴守文등에게 太子武와 상의해서 정사를 하라 이르고 동월 丙午日에 죽었다. 그 후 高麗에서는 佛敎가

懶翁스님은 示廉侍中(염시중에 바치는 글) 題下에 本自圓成不在言 何勞開口爲君宜 末興一念先提起 驚蹋威音更那邊 (본래 원성하여 말에 있지

이 法性을 인용한 비유적 표현이기는 하나 忠敬公을 대하여 본래 圓成한 분에게 구태여 말로서야 어찌 마음을 논 하겠는가. 이심전심 마음이 통할 뿐이다. 지존, 지귀한 高賢(이러한 표현은 帝王이나

상전을 진퇴할 때 글을 쓸 때나 늘 필경 이 안을 참고하 십시오. 그러면 신심이 하나 되고. 오매가 같아질 때…… 관직이나 신분을 바꾸지 않고 도 천하의 선지식이 전하지도 말하지 못한 本有의 일을 알

꽃지고 피는 세월 그 몇해인가.) 이렇게 東亭公에게 弓를 理養이라 지어주고 理는 天下 國家의 大經이며 聖人들은 이것으로 天下人을 편하게 하였을 만치 큰 뜻과 근본이 여기 있으니 此菴本來窮理路(이 암

1면 下에서 계속

'95년도 회계 결산안 승인 수입

'95년 예산액		'95년 결산액	
803,099	'94년 이 월 금	803,099	
5,000,000	'95년 기금이자수익	5,000,000	
1,500,000	종보간행제헌성금	1,000,000	
1,000,000	헌 성 금	400,000	
8,303,099	계	7,203,099	

지출

항 목	'95예산	'95년집행	비 고
전화요금	400,000	296,080	-103,920
사무비	500,000	89,560	-410,440
출장비	500,000	557,200	+57,200
회의비	1,500,000	598,000	-902,000
향측대	300,000	330,000	+30,000
종보간행	1,500,000	1,320,000	-180,000
경조비	500,000	679,600	+179,600
거마비	2,400,000	2,400,000	0
잡비	400,000	200,000	-200,000
예비비	303,099	0	-303,099
소 계		6,470,440	
		현금732,659	
합 계	8,303,099	7,203,099	-1,832,659

'96년 예산안 확정 수입

'95년이월금	732,659
'96년 기금이자	
수익금	5,000,000
종보간행 헌성	1,000,000
광고수익	500,000
경상비보조헌성	1,500,000
계	8,732,659

('95년과 비교 429,560원 증가)

지출

항 목	'96년 예산액
전화요금	400,000
사무비	500,000
출장비	500,000
회의비	1,500,000
향측대	800,000
종보간행	1,600,000
경조비	500,000
거마비	2,400,000
잡비	400,000
예비비	132,659
계	8,732,659

地域소식

1. 坡州廉氏 보성문중 유적지 정화사업  
 全南 보성군내에 있는 淸溪影堂, 淸溪講堂의 개보수와 永思齋, 慇山齋의 보수 등 총

사업비 약 3억원을 예상하는 정화사업(추진위원장 廉吉燮)을 추진중에 있다. 文德面 내동 鳳陽山下 淸溪가에 있는 影堂은 1727년(英祖 3年 丁未)에 梁山書院으로

(뒷면에 계속)

건립되었다가 1868년(高宗 5년 戊辰)에 書院이 撤毀되자 그 자리에 1869년 淸溪影堂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신청이 되어 지금 전남도청에서 심의중에 있다.

2. 博士學位 받음  
 그간 韓國機器油化 試驗研究院의 수석연구원으로 활약해 오던 水原거주 23世 圭高氏가 금년 8월 23일 단국대학교에서 “저독성 농축형 유분산제의 제조와 W/O 에밀전에 대한 분산효율 특성” 제하의 論文으로 工學博士 학위를 받고 해당 論文 正本을 大宗會에 보내왔다. 圭高氏는 大宗會 車澤理事의 四男中 長男이다.

자에는 원래 이치의 길을 초극한다)라고 하며 깊은 마음을 전하였고.

또, 漁隱이란 偈頌에서는 古之通人達士 或隱漁, 或隱樵 而親風待時 現於朝發一言 則天下歸風而自化 若雲之從龍 如水之朝海 夫焉有一物.

(옛 통달한 사람들은 숨어살며 고기도 잡고 산에 나무도 하고 하였다. 기회를 보고 때를 기다렸다. 조정에 나타나면 구름이 용을 따르듯 물이 바다로 들어오듯 모두가 따른다.) 하면서 東亭公에게 理菴賢相 稱別號爲漁隱(理菴이 漁隱이라 별호를 지은것도 이러하리니)라며 渭水의 姜太公같은 사람이 그러했다며 글을 지어 보내기를

長江明鏡裏 也任平生志 世上無窮事 釣竿一揮置 萬里孤舟一片月 數聲長笛白雲飛

三皇五帝今何在 千古興亡只自知

且待黃河清淺日 風雲會有太平時

(거울같이 맑은 長江속에 평생의 뜻을 맡겨두노니 세상의 무궁한 일들이 낚싯대 휘두름에 있다.

其目凡八 因以舒優娛悲 既還不能忘也 請子同賦云.(염동정이 친녕현금사장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일에 따라 수시로 이름 지으니 그 이름이 여덟이다. 이로서 근심을 풀고 슬픔을 자위했다. 돌아가서도 이를 잊지 못하여 함께 시를 짓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金沙八詠의 名時를 傳하는데 東亭公이 정한 여덟개의 이름은 西山採薇(서산에서 고사리 캐고) 東江釣魚(동강에서 고기낚고) 龍門斷藥(용문에서 약초캐며) 處谷耕田(처곡에서 밭갈고) 漢浦弄月(한포의 달구경) 波城望雨(파성에서 비오는 경치) 長興拾栗(장흥에서 밤 줍고) 註邑尋梅(주읍에 매화감상)인데 함께 귀양살이를 驪州에서 한 것도 아닌 牧隱의 詩는 傳하고 體驗하고 이름지은 東亭公의 詩는 傳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漁隱이라 東亭公이 自號한 뜻을 太古스님과 牧隱의 漁隱記에서 말하는 두 글은 음미할 만하다.

또 太古스님은 示廉政堂興邦(염정당문학에게 주는 글)에서

# 太古普愚國師와 懶翁慧勤王師의 심오한 法文

(현상의 청이 너무 간절했기에 말이 너무 길어졌군요. 다시 노래를 짓습니다.

조수가 없다는 말의 뜻을 간절히 참구할 것이니 끝까지 참구해가면 그대로 드러나리라. 의심다하고 생각없는 곳 조주의 면모 어떠한고 만약 또 딴 생각낸다면 면전에 축도는 더욱 험하리) 또 答廉政堂興邦(정당문학 염홍방에 답하여)

題下에 非春是處是花開 也任浮雲空去來 立處如如如不變 軒轅何必上瑤臺

(봄이 아닌 이 곳에 꽃이 피었나니 부질없이 오가는 구름에 맡겨두라. 선자리에서 여여히 변하지 않으면 현원 — 전설적 제왕 — 이 구대여 신선의 누대에 오를 것이 있겠는가)

太古스님은 위 2題의 글에서 政堂文學(고려때 門下省의 從2品벼슬)인 東亭公에게 주고 받은 글에서 먼저 唐나라 때의 有名한 禪僧인 趙州從諗(778-897)의 널리 알려진 話頭(혹은 公案, 古則으로 참선

雄尊者諡圓證塔銘에 보면 三司左使 廉興邦이 門徒로 明記된 것으로 보아 太古스님이 중지하는 佛徒였음을 알 수 있고 끝의 詩句에서 東亭公이 어떠한 글을 올렸기에 봄이 아닌데 꽃이 피고 여여불변한 마음이야 뜬구름에 맡기고 전설적 제왕이 신선의 누대에 오를 필요까지 있겠는가의 句는 太古스님이 東亭公을 어느 정도의 높이로 평가했는지 짐작해 보게 된다.

이밖에도 이북 平北 寧邊郡 北薪峴面 安心寺에 禍王10년 甲子에 세워진 指室, 懶翁 舍利石鐘碑에 보면 優婆塞(우바색 在家 男子신도)로 忠勤翊戴變理贊化功臣重大匡 門下贊成事 判典禮司事 成均大司成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 廉興邦이라 明記되어있고(이때에 重大匡은 從1品벼슬) 같은 碑에 正順大夫 廉廷秀라 있고 또 驪州 神勒寺 大藏閣記(禍王 9年 癸亥)에도 左使 廉興邦 知申事 廉廷秀로 두 분의 記錄이 있으며 水原 日峴面 先教里 소재 彰聖寺地

에 있는 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국보제22호)에도 三司左使로 東亭公이 知申事로 清江公이 있는 것으로 보아 2世 두 분 先祖께서도 佛門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상에서의 믿을만한 記錄에서 보는바와 같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高麗末葉의 高僧들의 話錄이나 塔碑에서 우리 先祖분들의 佛敎와의 자취를 보면서 이때의 우리 先祖분들의 불교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직접적인 話錄이 왜 傳하지 못했는지의 아쉬움과 지금까지 우리 門中문헌에서조차 이상에서의 記錄도 언급이 없었는지를 자탄하면서 더 노력해서 우릴 先祖분들의 흔적을 찾는일은 高麗末의 잘못된 사적(고려사, 고려사절요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되어 일가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이다.

(碧江)

만리 외로운 배에 한 조각 달이 뜨고 몇가닥 긴 전대소리에 환갈매기는 나는데 三皇五帝는 지금 어디 있는가.

천고의 흥망은 그저 스스로 알 뿐이다.

黃河의 맑은 날을 기다려 풍운을 타고 태평시를 만나리라)라 하며 偈頌으로 東亭公이 漁隱이라 號를 스스로 지은 心思를 대신 노래하였는데 이 때가 東亭公께서 驪州川寧縣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흐르는 물을 बे개로 삼는다는 뜻이 담긴 枕流亭을 짓고 주변 風景을 돌면서 漁隱이라 自號했듯이 곳곳에 이름짓고 절경과 생활모습을 노래했는데 金沙八詠이라는 것이 있다.

후대에 와서 李穡이 金沙八詠의 詩를 지으면서 廉東亭謫居 川寧縣金沙莊 隨時立名 題

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這箇無字 不是有無之無 亦不是眞無之無 畢竟什麼道理 耶 既有此疑時 切切參詳看。 自然逗到百不知百不會 這裏便是好處

(한 스님이 趙州스님께 개에게도 佛性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조주는 없다고 했다. 이 없다는 말은 有無에서의 없다는 아니고 참으로 없다는 無도 아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道理이겠는가. 이러한 의심이 있을 때에 간절히 참구하면 저절로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는 참으로 좋은 곳이다.)

中略 太古因賢相 請勤動不覺 縷縷復爲詞曰 趙州道無意 正好切參看 參到百不會 便是露團團 疑書情忘處 趙州是何顏 苦也別生念 面前蜀道難

자가 참구하여야 할 문제제기)인 趙州無字 혹은 狗子佛性(조주가 개에게는 佛性이 없다고 하자 질문한 중이 부처님은 오만생물이 다 佛性이 있다하였는데 왜 없다고 하는냐는 반문에 조주는 그는 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라 했고 또 다른 스님에게는 개에게도 佛性이 있다고 답하니 그 중은 반문하기를 佛性이 있으면 개는 왜 가족부대속에 있는가 하니 조주는 그는 알고도 짐짓 범하는 까닭이니라 했다.)을 들어 說法하는 內容을 살펴보면 이때 東亭公께서는 이미 佛法의 깊은 경지에 있었다고 믿어지고 자주 묻고 답하는 교분을 여러 번 가졌고 또 洪武18年乙丑9월에 王命에 의해 李穡이 글을 짓고 權鑄가 글을 쓰고 전각한 리

**大宗會 基金 주신분들**

現 大宗會 運營基金의 利子 수익만으로는 경상비 지출이 어렵다는 실정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헌성해 주신분들은 다음과 같다

**大宗會 基金 主 申 分**

- ◎ '96년 3월이전 기금 주신분
- 在熙 1,000
- 昌勳 東鎬 吉正 宇權 各 300
- 玗澤 德洙 鍾建 峻台 弘周 琦燮 昌燮 吉榮 公勤 在根 炳斗 庚桓 各 200
- 且祚 澤龜 賢植 京根 英燮 各 100
- 仁洙 仁必 各 50
- 洛元 30
- 총 5,530만원

◎ '96년 3월 이후 헌성 약속 해 주신분

- 玗澤 2,000
- 水原宗親會 500 琦燮 200
- 東鎬 洪太 宇權 相顯
- 車澤 泰模 德洙 賢植
- 宗桓 安慶 各 100
- 學先 50 昌鎬 30
- 총 3,780만원

**三和工業株式會社**

會長 廉 琦 燮

(C & G 주방용고급장갑)

본사·공장  
전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56-12  
전화 0656-353-1893  
부산·사무소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228-2  
전화 523-9001-3

**일가분들의 앞날에 榮光된 結實을 빌며**

**東邦海運株式會社**  
**인트라通商株式會社**  
代表理事會長 廉 德 洙  
본사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8-7 裕晟빌딩 4층  
전화 463-8484 FAX 463-8487  
인트라 부산시 중구 대창동 2가  
35-4 東棼빌딩 602호  
전화 466-4635~6 FAX 466-4636

**대성강구(鋼球)공업사**  
대표 廉 學 光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2-2  
전화 0545-974-9347-8  
FAX 0545-974-9349

**東村神經精神科醫院**  
의학박사 廉 宇 權  
대구시 동구 검사동 990-169  
전화 병원 983-2345, 5432  
직통 983-4433  
자택 985-2345  
FAX 982-2527

**保寧韓醫院**  
院長 廉 圭 顯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97-7  
전화 362-7407, 362-1013  
자택 712-0130

**廉韓醫院**  
院長 廉 賢 植  
부산시 중구 동광동 4가 21-1  
전화 469-5543, 463-9266  
FAX 469-0810

# 壬辰倭亂과 廉門의 勇將

## 退隱堂 廉傑편(四忠)

공의 字는 國忠이시고 號는 退隱堂이시다. 1545년 4월 15일에 康津郡 七良面 栗邊里에서 考 어모장군(禦侮將軍) 副司果 諱仁亨과 妣 淑人 金海金氏의 사이에서 出生하였다.

祖考는 展力副尉 折衝將軍 諱 將敏이시고 公은 中始祖 忠敬公의 11代孫이시다.

어려서부터 천품이 뛰어나고 총명하며 단정하였다. 전현감이었던 金光俊에 수학하여 효심도 지극하여 이웃의 칭찬이 많았다. 어려서 꽃에 나는 벌은 임금님의 기상이요 춤추는 나비는 임금님의 정일세(蜂起花王將 蝶舞東皇情)이란 詩를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고 한번은 집에 도둑이 들어 양식 등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여러 구실로 접근해서 도둑의 옷자락에 먹칠을 해놓아 후일, 이웃마을에서 무례한 들을 검거케 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이 지방에서 칭송의 표적이 되었다.

월 24일에 많은 병력으로 몰려와 고을 요소를 포위하며 공격해왔다. 이때 막내 아우 慶이 전사했다(이때 나이 14세였다) 공을 비롯 의병들은 더욱 분발하여 적을 무찔러 적병 수백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이때즈음 연해의 많은 고을들이 적에게 깃잡히고 의병들은 패퇴하였는데도 오직 강진지역만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이 거느린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때 統制使 李忠武公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칭찬하며 1597년 11월 18일에 공을 義兵將으로 임명하였다. 얼마후 왜군이 長興 會寧鎭 大興郊에 진격하여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공의 진영에서 불과 20리 떨어진 곳인지라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우선 의병을 몇개로 나누어서 지형을 이용하여 요로에 매복케 하고 스스로는 야음을 타서 적진에 불을 지르며 기습하여 많은 적병을 사살하였고 달아나는 적병들도 요소에 매복한 의병

고 의병의 사기도 떨어졌으나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을 저버릴 수 없어 의병들을 독려하여 곧 巨濟에 진주하여 적의 대군과 싸워 여러번 전과를 올렸으나 과상적으로 몰려오는 적군의 끈질긴 응전에 사력을 다하여 분전하다 1598년 11월 어느날 적탄을 받고 전사하였다.(享年 54세) 같은날 아우 瑞와 아들 弘立도 함께 전사하니 살아남은 모두가 이 충절에 고개를 숙였다. 공이 전사한 후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공의 옷과 신이며 의발 치아의 초흔으로 康津郡 七良面 丹月里 栗邊村(옛 佛舞洞)에 장사지냈다. 동생 瑞와 慶, 아들 弘立의 묘도 모두 佛舞洞에 장사지냈다.

공의 配位 貞夫人 慶州李氏와의 사이에 아들 弘立이 있고 아들 弘立의 配位 淑夫人 金海金氏와의 사이에 得吉, 得成의 두 형제와 二女를 두었다.

宣祖 38乙巳 4月 16日(서기 1605년)에 공과 아우 瑞 및 아들 弘立에게는 宣武原從二 등

## —宣武原從功臣 兵曹判書 廉傑

## 宣武原從功臣 兵曹參判 廉末卿—

## 參判公 廉末卿 將軍편

공의 字는 慶玉이시고 末卿은 諱이다.

1553년 癸丑 3月 16일에 茲仁(現 慶山郡 茲仁面)에서 參判公 諱 億年과 妣 貞夫人 金海許氏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祖考는 參議公 春瑗이시고 公은 中始祖 忠敬公의 8代孫이시다.

공은 어려서부터 굳은 의지와 절개가 있었고 겸하여 슬기와 용맹이 뛰어났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일찍부터 士論에 의해 上啓되었다.

20세때 成均館에 유학하여 大司成 洪大民의 총애를 받음만치 총명하고 발군의 인물이었다. 宣祖12년 甲申(서기 1584년) 武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성격이 강직하기 때문에 權臣들과 의견차가 심해 귀향하고 만다. 돌아와서 이웃을 도우고 후학을 선도하여 공을 高소장(姑蘇庄)이라 불렀다.

1586년 이후 일체 權門勢家

前篇 8號에 이어 이번호에는 退隱堂 廉傑편과 參判公 廉末卿장군편을 소개한다.

…… (편집인) ……

졌다. 이때 순찰사 尹公과 방어사 李沃 절도사 申翬이 거느린 道兵은 약 22,000명이었고 전라도 순찰사 李洸과 방어사 郭燦은 약 35,000의 병력이고 경상도 순찰사 金수(金暉)는 사졸을 다 잃고 약 40여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있었다. 공은 의병을 거느리고 淸安으로 가서 장사 黃炳中 등을 얻고 5월 11일에는 竹山으로 가서 의병 560여명을 더 얻어 太平院에 주둔하였다. 이때 적대군이 접근한다는 말을 듣고 의병을 4분하여 지형을 이용하여 요로에 매복시켜 적을 기습공격하여 적군 수 100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太平院에 돌아와서 순찰사 尹公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순찰사 尹公은 용인에서 패하고 부근의 관군은 北斗山에서 패배하였던지라 급히 27일에는 太平院을 출발하여 龍巖山에 진주하였다. 또 순변사 이일(李鎰)이 尙州에서 패하고 忠州로 왔고 兪世鎭이 이

무예에도 탁월하여 늘 아우인 瑞와 慶은 물론 아들 弘立에게도 兵書를 강론하고 무술을 연마케 하여 부근에서는 四將軍이란 말이 퍼졌다.

## 壬辰倭亂에 의분하여

壬辰亂이 일어나 왜병이 康津 九十浦에까지 침입해 방화, 약탈과 학살 등 참사가 전해지자 公은 의분하여 동생과 아들에게 국가위난의 실정을 알리고 목숨바쳐 항전할 것을 다짐하고 부근 고을에서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무기와 장비가 없어 골몰하다가 현청의 장적으로 병사의 갑옷을 만들고 손수 병기를 제작하여 대나무에 의병의 기를 달고 출진하게 된다.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적선박 가까이 접근해서 위계를 써서 적군에게서 많은 화살을 얻고 모여진 의병 30명을 거느리고 水淨寺에 陣을 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더 모으는 한편 고을 주변의 적과 상대하여 열등한 장비와 적에 비해 적은 수의 병력임에도 지형을 이용하고 때를 가려 적을 기습하고 요격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장비를 노획하였는 바 분개한 적이 1592년 9

에 의해 선멸됨으로서 이후 근처에서는 왜적의 준동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얼마후 충무공 본영에서의 령에 의해 公이 이끄는 의병이 영남 방면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예교(曳橋)에서 적과 대전하여 세번이나 싸워 큰 전과를 거두게 되자 李忠武公은 더욱 公을 칭찬하고 公에게 정병 300명을 더주며 격려했다. 얼마후 沒雲臺 싸움에서 왜장 두명의 작전에 말려 李忠武公의 아들 면(勉)이 전사하였을 때 李忠武公이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公은 용감히 출전하여 치밀한 작전술로서 적장 “마회음”을 사로잡고 宋汝宗 宋希立와 함세해서 나머지 적장 “마다치”를 생포해서 보고하니 忠武公은 자식의 치욕을 씻었다며 公의 공로를 격찬하고 전과를 조정에 상계함으로서 守門將에 임명되었고 또 司僕寺主簿로 되었다. 그후 忠武公과 함께 노량(露梁)해전에 참여하여 적선 수십척을 부수고 적장 10여인을 살해하는 등 큰 공로가 있었으나 이 싸움에서 忠武公이 전사함으로서 公의 공로는 보고되지 않고 말았다. 믿었던 忠武公을 잃고 公은 허탈해지

功臣이 수훈되고 그후 公에게는 資憲大夫 兵曹判書 아우 瑞에게는 兵曹參議 막내아우 慶에게는 通政大夫 承政院副承旨 아들 弘立에게 吏曹參議의 벼슬이 추증되었고 公의 倡義地인 栗邊村萬老松 밑에 四忠殉節碑가 세워졌고 1950년 11월에 退隱堂實記가 刊行되었으며 1955년 7월에 褒忠旌閭가 건립, 1963. 2. 27에 四忠閣이 건립되고 1970. 3월에는 四忠臣을 享祀하는 柳川祠가 세워졌고 1978. 9. 22에는 四忠臣 묘역이 全羅南道文化財 36號로 지적되며 1983. 4. 28에는 廟庭碑가 건립되고 1985. 3월에는 四忠閣과 崇義門과 四忠門이 보수되었다.

## 참고문헌

退隱堂遺事, 行錄 月波鄭時林撰  
義兵將 退隱公 行蹟, 古今島戰勝碑  
金陵誌 湖南節義錄 三綱錄 仕宦錄  
宣武原從功臣抄略, 守門將廉傑錄差抄  
義兵將 守門將公行蹟—瑞  
義兵主簿公行蹟—弘立  
旌閭事實 勉庵 崔益鉉

와는 접촉을 끊고 고을에 夏山精舍를 지어놓고 후학을 지도하였는바 당시 公의 詩로 붉은티끌 바람에 날려 내 갑옷에 스치누나  
3년 머무르다 한강배타고 돌아왔네  
오늘밤 외각몽(하얗은 꿈) 깨고 쉬니  
하산 밝은 달아래 심기가 새롭구나  
(紅埃佛佛僕貂裘  
三歲遲歸漢水舟  
今夜好休蝸角夢  
夏山明月自新秋)  
라며 심정을 읊었다. 서가에는 늘 만권의 책이 있고 특히 兵書읽기를 좋아했다. 친구들이 詩文을 함께 하자면 늘 속된 사람들을 왜 본받으려 하는가라며 사양하고 海叟 李泰根과 늘 물가를 찾으며 나라일을 걱정했다.  
壬辰년 4월 13일에 왜적이 침입하여 三南을 유린하고 서울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비분필기하여 李泰根 嚴道永 등 31명과 앞장서 의병을 모으자 家財를 털어서 군비에 충당하고 전열을 갖추고 秋風嶺에 주둔하면서 순찰사 尹先覺에게 청하여 거느리는 의병의 절재를 청하니 막하에 예속시

끄는 의병이 北獐山에 있다가 공격당하여 거의 전멸했다는 소식 등을 듣고 정병 500여인을 거느리고 7월 1일 金獐山에 주둔하면서 요로에 매복시키고 18일 폭풍우내리는 날씨를 이용하여 적을 기습하여 적 200여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27일에 우색평(牛塞坪)으로 환군하여 本營의 절재를 기다렸다. 29일에는 적장 원소량(源小郎)이 대군을 거느리고 부근에서 의병들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듣고 嚴道永으로 하여금 소수 정예군을 편성하여 적장의 본영을 기습하게해야 적 300여명을 죽이고 백여명을 사로잡았다. 적장은 패퇴하였지만 이 싸움에서 嚴公이 전사하였다. 公은 적의 수급들을 순찰사 尹公막하에 보고하려고 李泰根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李公이 전사함에 분개한 公은 黃炳中에게 본진을 지키라 하고 정예병력을 거느리고 출진하여 적을 추격하여 10여차례의 격전끝에 적은 도주하고 이 싸움에서 70여구의 적수급을 건우었다. 1593년 7월에 후퇴한 적장 源小郎이 3,000여명의 군사로 牛

(뒷면에 계속)

坪 본진을 공격하여 왔다. 우세한 병기와 훈련된 왜적 대군은 수적으로 약한 의병을 포위하려 하자 6일 하루의 격전에서 적장 5명과 수백명을 사살하였으나 적은 병력을 증원하여 4,000여명의 대군을 재편성하여 반격해 옴으로 8일 하루에 수십차례의 전투를 진두지휘하여 많은 전과를 견우었으나 공은 이날 전투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3번맞고 전사하니 享年 41세였다. 황병증이 공의 시체를 안고 돌아와 순찰사 尹公에게 보고하니 놀라고 통곡하며 포박(布帛)과 挽詞와 제문을 지어 보내니 方夏山(茲仁 東面 六洞 浮日村)에 장사지냈다. 이때 방어사 李沃 전라방어사 광영도 만사를 지어 조문하였고 청주, 진주, 여산, 직산 등지의 수령들이 祭尊을 베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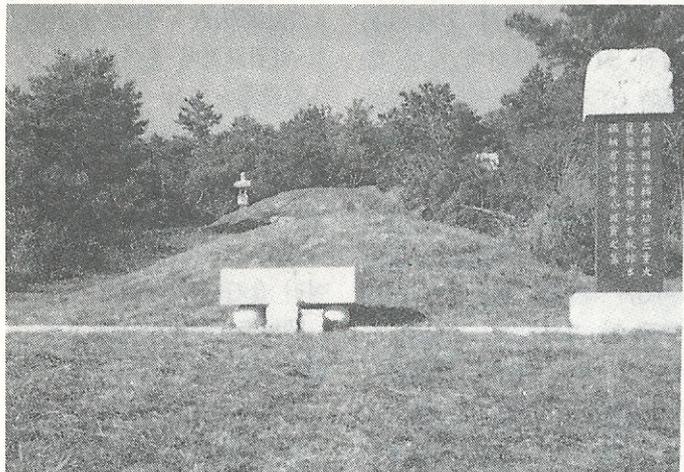
조문하였다. 本營에서는 公의 전적을 상계함으로서 兵曹參判에 추증되고 宣武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되었다.

配位 貞夫人 慶州 李氏와의 사이에서 通德郎 漢成 將仕郎 貴成과 俊成의 3男을 두었고 1663년 癸卯에 土論의 公議에 따라 茲仁에 祀堂을 건립하여 龜淵祠라 賜額하고 外孫인 府院君 洪在龍 判書 洪鍾應의 撰文과 祝文 및 序記가 있고 每年 春秋로 유림에서 享祠하고 있다.

**참고문헌**

僉正公 行蹟 및 參判公遺稿  
龍蛇倡義日記 및 長子 漢成의 參判公遺事  
黃炳中日記 倡義격문 金陵誌  
宣武原從功臣 抄略

(碧江)



고향까지 가서 일가들이 모여 벌초한다는 일이 어려워 오래된 산소의 보전은 어렵다는게 어른들의 공통된 근심이다.

얼마전부터 각지방의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면 현지답사를 하여 매년 비용이 책정되어 비용만 주면 벌초를 해주는 제도가 생겼지만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벌초상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중론이다. 기금이 넉넉한 문중에서는 인부를 고용해서 벌초도 하고 푸짐한 제수도 마련하여 제사도 모시지만 후손들이 참여도 않고 제수도 소홀하면 산소의 보전이나 제사도 못하게 되는 예가 많다. 어느 문중에서는 연고가 있는 후손의 성인남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벌초와 제사에 참석토록하고 부득이 참석 못 할 때는 일정비용이나 대체인부의 품삯을 납입케 하여 벌초를 일정일에 하고 제사때에는 제수비를 책정하여 거출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손이 부족한 고향농촌에서 나이 많은 일가어른이 타향에서 벌초나 제사에 관심도 없는 일가를 생각하며 외로이 벌초나 제사를 모시는 광경을 생각할 때 이것은 비극이고 메마른 인정의 표상이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도父

**— 廉門의 장한 女人相 —**

화성군 향남면 반월리에 廉順根라는 여자가 있다. 갖은 고생을 마다 않고 前妻소생 6남매를 사랑으로 길러 大學까지 졸업시켰고 두딸을 출가하게한 여걸이다. 옛부터 계모라면 못된 女人상의 표본이고 자녀에게 학대만 하는 관계로만 표현되어 왔는데 그렇치만도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귀감이라 하겠다. 廉女史는 30여년전에 교육계에 투신한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결혼한지 27일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건 어린 6남매와 가난한

환경뿐이었다. 허무한 결혼에 비참한 상처였다. 그러나 廉女史는 3세에서 15세에 이르는 6남매를 버릴수는 없었다. 宗教人으로서의 양심과 우리 廉門에게만 유별나게 강한 여자로서의 힘이 작용되었다고 본다. 뼈를 깎는 고초와 고독을 이기고 모진 세대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더우기 애들을 보란듯이 성장시키고 싶었다. 참고 근면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결정은 두 딸을 출가시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고 4남매도 공무원으로 활약중이라니 하늘도 도우셨음이라. 오늘 같은 세대에서 고마운 어머니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휴머니스트가 아닌가 한다. (보성 東右)

**— 生活의 禪 —**

**(흔들리는 건 바람이나 깃발이나)**

과실을 쟁반에 담고 이것을 먹을 때 그 중 작은것 부터 차례로 먹느냐 아니면 큰것부터 차례로 먹느냐.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생활의 바른 방법일가.

젊은 사람들의 시험문제에서 가·부의 결정을 묻는 식으로 답을 구한다면 이 물음도 이외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실생활면에서 이와같은 가·부양단을 곧 결정해야 할 시기

는 죽느냐-사느냐 등의 문제에서 가·부 양단의 결정을 해야될 입장일 때 전제된 답에 구애되지 말고 왜 지금 내가 가야할때가, 왜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만 되느냐,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해답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일의 가치성을 저울대로 문제 자체를 여과시켜보면 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정연하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六祖가 印宗의 傘下에 있을 때 두 중이 다투기를 당간지주 위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하나는 “깃발

— 伐草 —

좁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埋葬을 선호하는 우리들의 전통에 대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찬성하면서도 우리내 기성세대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産兒制限의 정책하에서도 어떻게 家業을 남자로 하여금 이을까 생각하게 되고 父母님을 비롯한 선조님의 산소를 어찌 보존하고 또 매년의 별초와 제사는 어떻게 모실까 하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문중에서 祭需畚을 묘지기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賭租(도조)로서 별초도 하고 제수도 마련케

했는데 근간에는 그러한 방식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봄, 가을에 무덤의 잡풀을 베어 깨끗이 하는 일을 伐草라고 하는데 옛날 무덤은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근년에는 초목이 무성하여 산소까지 접근하기도 어렵고 후손들이 도시로 모여있고 젊은층은 여가도 내기 어려워져 별초와 歲一祭(세일제—5대조 이상의 선조님 산소에 매년 음력 10월중에 산소에서 올리는 제사)는 대소문중의 일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근간에 刈草機(예초기—풀 깎는 기계)가 보급되어 별초 작업은 쉬워졌지만 후손으로서 별초를 해야 된다는 마음들도 소홀해 졌고 더욱이 먼

母님을 비롯한 조상님의 은덕을 무시하는 종교는 없다. 그 은덕을 기리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은혜에 감사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은 영구히 변치않는 인류공통의 진리라고 믿고싶다.

나는 소홀히 하고 모시지 않으면서 후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혼탁한 세정, 어렵게 사는 우리들. 가을은 깊어가고 또 세월은 흐르는데 스스로의 마음에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선조님의 산소는 지금 어찌 보존되고 있을까. 그 분들은 오늘 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이 해를 보내자.

丙子晩秋에 碧江

에는 당황하고 고민하여 결정을 주저하는 예를 우리는 흔히들 본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물음의 답은 가·부 결정의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다른 側面에서 다른 사고의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문제의 해답으로써 “손에 잡히는 것부터 먹으면 된다”로서 문제의 답으로 해보면 어떨까. 손내밀어 과실을 집을 때마다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먹을까 하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위의 해답이 여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유사한 문제로서 가느냐—마느냐. 어떠한 일을 할것인가—그만둘 것인가 더 거창하게

이 움직인다”고 하며 또 하나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六祖대사가 이를 보고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임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임이니라”고 하였다. 두 중은 이를 듣고 놀랐다. 論說의 요는 明白에 있다. 그러나 法은 논술로서 명백해지는 게 아니다. 잘못 전하면 눈썹이 빠진다고 했다. 더 이상의 사족(蛇足)은 필요없다.

시험을 눈앞에 둔 젊은 학생들에게는 사고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인생의 시험무대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은 한번쯤 음미해 볼만한 화두이다.

(毋影居士)

門中の 和睦과 무궁한 發展을 기원하며

法務士 廉昌勳

사무실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빌딩 202호  
전화 753-3930, 755-1081  
FAX 776-9104  
자택 0342-703-9720

法務士 廉鍾薰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별관빌딩A-301  
전화 753-3592, 754-2558  
FAX 779-1255

法務士 廉亨德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6 경서빌딩 501  
전화 777-3335, 318-4171  
FAX 779-0428

法務士 廉東囂

사무실 광주시 동구 궁동 7-7 이화빌딩 201  
전화 227-3177, 7800  
FAX 223-5536  
자택 267-7707

法務士 廉洪太

사무실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322-1  
전화 0522-61-4777 ~8  
자택 053-552-8363

# 兩世祖位の 官爵 — 祝文, 비석문등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坡州廉門에서는 每年 여러 곳에서 中始祖이신 忠敬公을 비롯하여 二世祖이신 菊坡公, 東亭公, 清江公의 享祀를 모시고 있는데 같은 분인데 곳에 따라 왜 祝文에서의 官職이 다를까, 또 碑石이나 族譜에서의 官職이 다른 것일까 하고 늘 疑問과 더불어 아쉬움이 남고는 했다. 마땅히 統一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지금의 우리 世代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 懸案에 對해 筆者는 수년 전부터 大宗會의 모임에서 검토하자는 案을 提示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결론을 보지 못 했으나 放置해 버려서는 안될 事案으로 믿고 일가분들의 意見을 綜合하여 論議된 후 結論을 얻어 大宗會에 보고하여 合意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우선 宗報를 통해 그 案을 提示하는 바이다.

이 案의 前提로서 現代의 觀點에서 보다 신빙성이 있는 확실한 근거를 자료로 삼고 우리 傳統의 慣例에 따라 그분의 一生동안 歷任한 벼슬 중 가장 名譽롭고 最高官職을

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曲城府院君. 贈諡忠敬公 廉公神道碑 并序로 되어있다.

이 碑石은 公의 巍勳盛業과 李牧隱의 文章과 韓文敬公修의 書를 얻었으니 三絶이라 하여 귀하게 여겼다. 다시말해 當代의 德望있는 宰相을 國葬으로 모시면서 王命에 의해 저명한 學者들에게 글을 짓고 쓰게 하였으니 禮遇나 格式에 빈틈이 없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더 이상의 追記나 삭제의 필요는 없어도 된다고 믿어진다.

後代에 와서 祝文, 族譜, 碑石등에 “判三司事”나 혹은 “都僉議門下侍中”의 官名이 첨가되는 例를 가끔본다.

高麗史 百官편(권76 지제 301)에 보면 門下府는 掌百揆庶務 其郎舍掌諫誥封駁國이라하여 나라의 온갖 政務를 맡아보고 랑사들은 王에게 충고를 하며 王命이 백성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을 맡는 곳이라고 했다.

初期에는 이 곳을 內議省이라 했다가 忠烈王 때 僉議府로 고치고 공민왕 5년에 中書

있었던 기록은 없고 庚申년(돌아가시기 2년전)에 領三司事로 되셨다가 이해 겨울에 府院君(國舅로서의 當연직이 아니고 親官으로 正一品上的 品階벼슬)이 되시고 그 후 다른 변동없이 壬戌3月 돌아가셨으니 官名을 神道碑文에서와 같이 功臣名과 品階 및 職名인 曲城府院君만으로 함이 可하다고 思料된다.

## 菊 坡 公

다음 菊坡公의 官職을 보면 결론부터 말해 忠敬公 돌아가신 후 官職이 변경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짐작컨대 父親이 돌아가시고 長子로서 三年居喪을 마치시고 禍王 11년 4월에 知貢擧로서 人才를 뽑는 일을 주관한 일이 있었지만 이때의 官職도 瑞城君으로만 표시되었을 뿐이다. 이 즈음 동생되시는 東亭公께서 이미 政丞반열에 있었으니 大匡 官職을 받는 일 없이 2년 후에 新軍部의 專橫으로 門中 모두가 禍를 당하게 된다. 때문에 菊坡公의 官職은 忠敬公 神道碑文 內容대로

高麗國 推忠輔理功臣 重大

(1384)에 세워진 寧邊 安心寺 指空 懶翁舍利石鐘碑文에 보면 東亭公의 官名이

忠勳翊戴變理贊化功臣 重大匡 門下贊成事 判典禮司事 成均大司成 藝文館 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때 벌써 重大臣 從一品이고 戊辰年正月前에 三司左使의 宰臣位인데 지금에 와서 匡靖大夫 門下評理(正二品) 云云해서는 맞지 않는다. 大司成, 大提學은 碩學만이 가질 수 있는 名譽職으로 사임하지 않는 한 終身職이니 그대로 하고 高麗國 忠勳翊戴變理贊化功臣 重大匡 瑞城君. 三司左使 成均館大司成 藝文館 大提學 上護軍으로 해야 될 것이다.

두분 兄弟가 같이 瑞城君으로 封해져 의문된 點이 있어 찾아봤더니 고려사 권제 126 열전 39 廉興邦전에 보면 辛禍時 作李仁任流干外封尋瑞城君(우왕때 이인임께 미움을 받아 귀양갔다 돌아와 서성군에 봉해졌다)의 기록이 있고 고려사 권73 지제27에는 禍王 6年5月 瑞城君 廉興邦이 知貢掌로 된 기록이 있고 우왕 11년 4월에는 瑞城君 廉國寶가 知貢掌로 되어 進士를 뽑았고 같은 쪽에 나란히 君號가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을 올 것이다.

## 祖 妣 位는

다음 祖妣분들에 대한 호칭인데 朝鮮代에서는 外命婦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나 高麗때는 대략적이었다. 고려때의 官職에 있던 夫人에 대한 호칭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본다

고려사 권제 75, 지제29에 封贈에 관해 文武一品 正妻 封小國夫人 二品正妻 封大郡夫人 三品正妻 封中郡夫人 四品正妻 封郡君.

(문무 一품의 正妻는 小國夫人 二품의 正妻에게는 大郡夫人 三품의 正妻는 中郡夫人 四品에게는 郡君)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一世祖妣 두 분은 神道碑文 內容대로

完山郡夫人 裴氏(충경공께서 하위관직때 돌아가심)

辰韓國大夫人 安東權氏로 하고 二世 祖妣분들은 위 규정대로 二品이상의 正妻이니 大郡夫人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金石總覽에 보면 開城廉氏配沈氏墓誌(고려 毅宗十六年 壬午) 檢校右僕射大府少卿 廉公妻 宣寧郡大夫人 沈氏墓誌(誌文略)

중복되지 않고 사실대로 표기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忠敬公

먼저 中始祖이신 忠敬公의 官職을 살펴보자.

忠敬公께서 서기 1382년 壬戌 3월18일에 世壽79歲로 돌아가시자 遺命에 의해 三日薄葬으로는 했으나 王命에 의해 都堂을 소집하여 有司들에 의해 國葬으로 3월20일에 장사하였다. 이때 王命으로 당대의 學者이던 李穡으로 하여금 碑銘을 짓게하고 또 韓修로 하여금 글을 쓰고 전각케 하여 神道碑를 세웠다. 이 碑石은 近代에 까지 傳해졌으나 오랜 風霜에 字劃이 잘 보이지 않게 될 무렵인 1899년 己亥10월에 后孫에 의해 重葺하였다. 碑石이 이북에 있어 지금 有無의 確認은 못하나 그 拓本이 傳해지고 있으며 碑文들은 우리의 族譜 甲申譜(숙종30년 1704)부터 傳해지고 牧隱文集에서나 여러 金石總覽등에 등재되어 있다. 神道碑의 碑題에 보면

門下省으로 하다가 동 11년에 다시 都僉議府라 했고 18년에 다시 門下府로 했다. 이곳 長은 忠烈王때는 僉議中贊이라 했고 곧 都僉議侍中으로 恭愍王5년에는 門下侍中으로 했다가 11년에는 僉議右左政丞로 했다.

또 判門下벼슬의 추이는 초기에 內議令에서 內史令으로 했다가 충렬왕 21년에 와서 都僉議令로 했다가 領都僉議로 하다가 공민왕 5년에 中書令. 11년에는 또 領都僉議로 하고 18년에는 領門下가 되었다가 禍王때의 判門下로 했다. 따라서 “都僉議侍中”이나 “門下侍中”의 官名은 있어도 都僉議門下侍中이라는 官職은 어느 時點에도 찾을 수 없다. 三司는 중앙과 지방의 돈과 곡식의 入納을 맡은 곳으로 長은 判事로 宰臣이 兼任하는 從一品職이었고 충렬왕때는 都事라 했다가 공민왕 11년에 판사 1명. 左右使 正三品으로 하고 禍王때 領三司事를 두었다. (判三司事는 文宗때 직명) 忠敬公께서는 判三司事職에

匡 瑞城君 藝文館 大提學으로 했으면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공신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推忠保節協贊功臣으로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族譜孫錄등과 祝文에서 가끔보는데 神道碑文 內容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는 듯하다. 또 어떠한 근거로 三重大匡으로 했는지 知春秋館事職도 근거를 찾지 못했다. 가끔 封瑞城君하는 경우도 보는데 封字는 빼는게 例이다.

## 東亭公

東亭公은 官職은, 東亭公과 清江公께서는 忠敬公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官職이 여러 번 변했는데 유독 두분의 官職은 後代인 지금에도 忠敬公 神道碑文 內容대로 碑石이나 祝文등에 쓰고있는 지 남득이 되지 않는다.

高麗史 권제137 열전50에 보면 戊辰正月(1388년)에 三司左使 廉興邦. 大司憲 廉廷秀 云云하는 기록이 있고 이보다 전인 禍王10년 甲子

## 清江公

清江公의 官職은 고려사 戊辰년 기록에 司憲府 大司憲인 기록이 있다. 司憲府는 掌論 執時政 矯正風俗 糾察 殫劾之任(정치의 득실을 론박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관리의 행동을 감찰하여 죄과를 규명한다)의 기관으로 長인 大司憲은 正二品이다. 때문에 清江公도 正順大夫 知申事가 아니고 官職을,

高麗國 崇祿大夫 司憲府 大司憲 右文館 大提學으로 함이

이 분은 中始祖의 八代祖되시는 諱德方の 妣이시다. 고려사 百官 권76 지제30 文宗 때 尙書省에는 尙書令 1명 從1品 左右僕射 각 1명 正二品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 제도는 다음 毅宗때까지 유지되고 있으니 正二品の 右僕射官職의 婦人이 宣寧郡大夫人이니 二世祖妣분들의 봉호는 郡大夫人이 되어야 한다는게 筆者의 意見이다. 이미 다 되어 있는 碑石이나 族譜를 어찌 고치냐의 문제는 다음 생각할 문제이다.

(24世 宗桓)

### 廉門과 關聯이 있는 新刊書籍 案內

1. 高麗崇義殿史 崇義殿仰巖齋中 發行 1992. 2 974쪽 非賣品  
고려공신록 여말충신록 경현사지 등 기타 고려조에서의 廉門 인사들의 行蹟자료 를 수집
2. 柳川祠誌 柳川祠儒會所 발행 1993. 3. 19 565쪽 非賣品  
壬亂 때 功을 세워 宣武原從

二等功臣으로 兵判으로 추서되진 12世 廉傑장군과 동생되시는 貞軒公 瑞 節齋公 慶 아드님되시는 剛齋公 弘 立을 모셔 1970. 3월에 건립한 柳川祠에 관한 사적을 수록

3. 麗末忠義列傳 高麗승의회 발행 1994. 12. 6 599쪽 가격 15,000원  
여말 충신들의 行蹟을 수록

# 평생을 義롭게 산 청지기

— 廉時道 — (8호에서 계속)

## 정처없이 떠난 방랑의 길

逆賊 생각만 해도 온 몸이 떨리도록 무시무시한 罪名이다. 逆賊이란 罪名이 붙는 날에는 三族을 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들이 逆賊이라는 罪名으로 獄에 갇힐 그 날 밤 許大監은 廉時道를 사랑방에 불러 들었다. 그리하여 自己 事情을 낱낱이 說明한 뒤에

“나는 이제 逆賊이라는 罪를 免할 길이 없게 되었네!” 하고 最後의 結論을 내렸다.

廉時道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드님께서 그러시다 하기로 大監까지야 어찌...”

主人大監이 나라에 對한 忠誠이 두터움을 잘 알고 있는 廉時道는 逆賊이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말일세. 그러나 子息 놈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어찌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제 꿈쩍 못하고 逆賊이 되는 수밖에 없네. 굳이 변명을 하는 것은 君命에 對한 臣下의 道理가 아니야.”

죄없는 젊은이들을 죽였느냐, 積惡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없으므로 나는 너에게 惡者를 擧게 하여 將次 너의 一家를 覆滅하리라.’ 하더라. 말일세.

이제 하늘이 나에게 惡者를 주시어 나를 罰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이 罰을 免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覺悟하고 있는 바이나 이 禍가 그대에게까지 미치면 안될 일이니 자네는 이 밤으로 몸을 避해 주기 바라네.”

“小人 같은 것이 무슨...”  
“아니야. 자네가 나의 心腹 임을 世上이 다 알고 있는 터이니 그냥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부디 이 밤으로 몸을 避해 주기 바라네.”

主人大監의 부탁은 매우 간곡하였다. 主人을 버리고 夜間逃走를 한다는 것은 廉時道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主人大監이 逆賊으로 몰린 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이었다. “그러하오면 一時 몸을 避하여 下回를 기다리겠습니다.”

노라니까 그 마을 한복판에 고래등 같이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다.

기와골에서 기름이 질질 흐르도록 화려한 집이었다. 아아! 저집이 굉장한 富者인가 보구나. 廉時道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밥이라도 한 그릇빌어 먹을 요량으로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리하여 大門間에서 下人을 불러 그 뜻을 말했다니 下인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 앉으시오. 우리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어느 분에게나 宿食을 提供하고 있다우!”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점심상이 나오는 것을 보니 식찬이 여간 豊富하지 않았다.

‘음. 世上에는 이런 고마운 집도 있구나!’

廉時道는 충심으로 고맷게 생각하며 오래간만에 맛난 飲食을 배불리 먹었다. 그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에 절반쯤 열려있는 뒷門에서 그를 유심히 엿보고 있는 中年 女人이 있었으나 그는 勿論 깨닫지 못하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고맙다는 致賀를 하고

보시겠나이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廉時道는 또 한번 어리둥절하였다.

“누구신지 모르겠사오네.”  
“저는 兵曹判書 金錫靑 大監宅 청지기로 있던 姜서방의 딸이옵는데 至今부터 16年前에 저의 집 애비가 主人宅 말 값 600냥 잃어버린 것을 손님께서 찾아주셔서 저의 집 애비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손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그때 소녀로서 손님을 뵈은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대가?”  
廉時道는 크게 놀라며 매우 반가워 하였다. “이렇게 만나뵈게 되어 반갑기 한량 없사옵나이다. 바라옵건대 여쭙 말씀이 있사오니 부디 안방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女人의 말에 廉時道는 꽤히 승낙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실로 반갑기 짝이 없는 相逢이었다.

“아니 그대 그대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富者가 되었는가?”

廉時道는 방에 앉아서도 기쁨을 금치못하며 물었다. 그

녀 자신도 붓짐장사를 하면서 유명하다는 절간은 모조리 찾아다녔다. 그렇게 삼사년을 찾아다녔으나 廉時道の 行方은 묘연하였다. 그러나 붓짐장사만은 제대로 순조로워서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되어 女人은 합천 땅에 터를 잡고 이번에는 무명장수를 본격적으로 始作하였다. 그것이 크게 들어맞아서 이제서야 누구 부럽지 않은 富者가 되었다.

그러나 돈은 많아도 오매불망 찾을 사람을 못찾았으니 그것이 안타까웠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축수를 올리면서 행여나 廉時道를 만날까하는 一念에서 사랑방을 공개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누구에게나 宿食을 提供하기로 하였다. 그 모양으로 2~3년을 지내다가 어제 밤에는 貴人을 만나는 꿈을 꾸었더니 오늘 정말로 廉時道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찾아주었다니 고마운 일ियो.”

廉時道는 姜處女의 애뜻한 기나긴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의 알뜰한 정성에 再參 致賀와 感謝의 말을 하였다.

“아니옵니다. 大監님께서 어찌 그런 反逆之心을 품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生覺해 보면 이것도 나의 運命인지. 이제와서 돌이켜 보면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닐세. 모두 내가 不德한 所致란 말이야. 내가 일찍이 持平 벼슬을 지낼 때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네. 하루는 地方을 巡廻하다가 젊은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青年의 옷차림이 너무도 사치스러워서 그 青年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려니까 뒤에 따라오던 젊은 아낙네가 나를 보고 욕을 마구 퍼붓더라. 그래서 그 女子마저 붙잡고 보니 그 亦是 옷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차렸거든.

알고 보니 그들은 內外間이었는데 계집이 조금도 反省하는 빛이 없기에 화김에 두 內外를 당장에 죽여버렸네. 그런데 며칠만에 至今 逆賊으로 몰린 庶子 堅이란 놈이 잉태했는데 그 놈이 생겨나던 날 밤 꿈에 白髮老人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옷을 사치스럽게 차렸다고 벌을 내리려거든 그 父母를 罰할 일이지 어찌해서

廉時道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방을 물러나왔다. 그리하여 그날밤 몸을 避하고 있었다니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許大監과 그 一家는 逆賊이라는 罪名으로 官憲에게 체포되어 獄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廉時道는 멀리서 눈물을 지으며 主人大監과 그 一家의 冥福을 비는 수밖에 없었다.

主人과 마누라를 잃어버린 廉時道는 바랑 하나를 질머지고 定處없는 放浪의 길을 재촉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意慾이라고는 八道를 流浪하며 名山大刹을 구경하는 일밖에 없었다. 어느 때에는 나무 밑에서 이슬에 젖으며 새우잠을 자기도 했고, 또 어느때에는 남의 집 門前에서 식은 밥을 얻어먹으며 人生의 無常함과 먼 옛날을 回顧해 보기도 하였다.

### 낮선 곳에서 강여인과 상봉

그렇게 形言할 수 없는 流浪생활 5~6년이 지난 어느해 여름에는 嶺南에서 第一가는 名刹寺인 합천 海印寺를 구경하기 위해 어느 마을을 지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였다. 12~13세 가량 먹여 보이는 小女가 안에서 나오더니 廉時道를 보고 공손히 절을 하더니

“罪悚스런 말씀이오나 주인 아주머니 말씀이 손님께서 안으로 잠시만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廉時道는 너무도 뜻 밖의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뭘! 뭐라고?”  
“죄송하오니 主人아주머니가 손님을 잠깐만 만나 보고 싶으시대요.”

家庭부인이 외방 남자를 만나자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소녀의 얼굴을 한 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너 그거 무슨 소리냐. 네가 말을 잘못 전하는게 아니냐?”

그러나 그 때 中門이 살며시 열리더니 30세 가량 되어 보이는 女인이 밖으로 나타났다. 그는 廉時道 앞으로 공손히 걸어오더니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손님께서는 저를 못알아

러자 강여인은 이제야 愁心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듯이 기쁨의 한숨을 내 쉬면서 지나간 歷史를 풀어 놓았다. 姜小女는 아버지를 살려 준 恩惠를 갚기 위하여 廉時道에게 몸을 바치려다가 거절을 당했지만 그의 결심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廉時道 자신이 小女를 데려가기를 듣지 않으므로 소녀는 어쩔 수 없이 한 평생을 혼자 늙을 결심을 하였다. 그러다가 廉時道의 마누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3年喪이나 지나거든 廉時道의 아내가 되기를 간청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매양 人間事는 好事多魔라는 격으로 3년이 거의 다 지나 갈 무렵에 許大監宅에 逆賊이라는 커다란 患難이 생겨서 廉時道는 어디론지 종적을 감추어 버렸던 것이다.

### 청렴 결백으로 얻은 경사

떠도는 소문에依하면 廉時道는 중이 되어 어느 절간에 들어갔다고도 하였고, 或은 붓짐장사로 나섰다고도 하였다. 어쨌든 廉時道를 찾아야만 할 판이므로 그 때부터 처

“서방님을 만나뵈었으니 저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저는 이미 몸과 마음을 서방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몸이오니 이제나마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고마운 말 다할길이 없소이다. 나같은 사람을 이처럼 찾았다니 내 어찌 그대의 뜻을 저버릴 수 있으리오.”

이리하여 廉時道는 姜處女와 그 자리에서 百年佳約을 맺게 되었다. 新郎 廉時道는 이미 50이 다던 初老人이요, 新婦 역시 30을 넘었다. 두 男女는 青春男女 같이 希望에 넘쳐 사랑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16년 전의 조그마한 清廉과 正直이 오늘에 와서 이처럼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열매를 맺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리오.

自古로 積善之家에는 必有餘慶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그 어느 때나 積善이란 헛된 것이 아닌 법이다. 廉時道는 百年佳約을 맺고나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恒時 옛날 主人이 억울하게 逆賊이라는 누명을 쓰고 故人이 된 것을 몹시 괴롭게 생각하였다.

(前面에서 계속)

그리하여 몇 해가 지난 뒤에는 許大監의 억울한 누명을 씻어 주기 위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다음에 高官大爵들을 찾아다니면서 許積大監이 절대로 逆賊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 결과 事必歸正이라 했던가 마침내 肅宗 六年 단기 4013년 庚申 대출척(大黜陟)으로 신원되어 그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되었다.

廉時道가 아니었다면 逆賊이라는 누명을 千秋萬代에 남기게 되었을 許積大監은 비록 死後에나마 汚名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오로지 清廉潔白하고 正義로운 廉時道 같은 사람을 心腹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을 以恩報恩이라 하겠다.

그 이후 합천에서 다시 壽進坊으로 가대를 옮겨 슬하에 孝子와 賢孫을 두고 80이 넘도록 夫婦和樂하고 偕老하며 天壽를 다했으니 仁者壽라 하겠으며, 積德之家에 必有餘慶이라 하겠다.

筆者는 熙朝軼事의 廉時道편을 옮기면서 이 어른이 어느 系出이며 坡州廉門의 族譜에 漏譜된 것을 못내 안타까워 하는 마음 禁할 수 없으나 그러나 筆者는 金國各地에 살고 있는 우리 坡州廉門의 새싹들이 무럭 무럭 자라서 第二第三의 廉時道와 같은 義로운 사람이 輩出될 것을 믿어 疑心치 않으면서 이만 筆을 놓는다.

敏燮(太宗會都右司)

시반이 되어 延吉에 도착하여 교포식당이라는 “金石”에서 저녁을 먹고 白山飯店에서 여장을 풀고 자게 되었다. 밤이 늦어 폐가 될까봐 일가에 가는 연락을 못하고 이튿날 아침 4시에 일어나 교포아가씨에게 간신히 부탁하여 여러 번 만에 겨우 일가 廉義三氏

어린이 같이 손을 흔들며 댄다. 일행들도 나도 손을 흔들며 젊은이의 앞날을 손모아 축복하며 이별을 고하였다.

한참동안 깊은 사념에서 깨어나 밖을 보니 우리고향 어느 길을 달리는 듯 했다. 이곳은 옛우리땅. 지금도 이 지역은 조선족의 구역이다. 사람도, 집도, 주변풍경도 우리 것 그대로 이다. 연결만 하더라도 30만 人口에 20만이 우리교포이고 거리의 간판도 위가 한글이고 아래가 漢文이다. 음식들도 거부감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초등학교는 물론 中, 高等학교가 여러 곳 있고 우리 돈이 환전할 필요없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일반환율 100元은 1만원)

이 지역에는 부여, 고구려의 옛 우리 유적지는 물론 일제하에서 광복을 염원하며 독립운동을 한 사적들이 즐비하며 근간에도 독립운동의 열사들의 기록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일가들은 이북에서와 같이 우리문중계열로서는 淸江 公의 후손들이 많았다.

근면성은 세계의 中華로서 역동하는 행보가 당당하였다. 겨우 1만불의 국민소득에 만족하고 낭비하고 태만한 마음들을 통감하여 반성하고 옛 부여, 고구려의 이 지역 우리 땅에서도 우리의 유적을 찾고 그때의 웅대한 기상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의 기운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東右)

### — 생각나는 분들 —

門中일에 열의를 다하시고 近年에 돌아가신분들이 생각난다.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대종회에서는 후손분들과는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살림을 맡으셨던 洪燮중무, 淸江公 후손의 기둥이셨던 감사 禮寬, 大同譜 편찬에 골몰했던 寬燮이사, 國寶級 鐘 박사 永夏고문, 太宗會의 빛나는 업적을 수놓으신 東鎬 전 會長 政街의 風雲兒 吉正고문 諸氏의 가족이나 자제분들은 이 어려운世態에 굳건히 生活하고 계시는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미는 데까지는 밀고 가는거야. 그러다 연료가 다하면 나는 떨어져야지 그런데 그 놈의 조종사가 갈광질광하면 떨어져 죽으면서 돌 속이 상하잖니”

불초한 저희 자식들이 못한 짓을 할 때면 꾸짖으시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데 그 아버님은 이제 저희들 곁에 계시지 않는군요. 崩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에 어쩔줄을 모르던 저희들 곁에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했을까요.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리석으나마 어르신들의 가르침과 분부를 잊지 않고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생전의 불효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과 맺으셨던 좋은 인연들을 잊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꾸짖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延吉에서 만난 일가 —

나는 처음으로 中國을 旅行하는 기회가 있었다.

民主平統 宝城郡 協議會의 員들은 中國의 社會相과 北韓

과의 接壤地域 우리 同胞의 實情을 관찰한다는 目的으로 金年 8월3일부터 1주일간 中國을 訪問하였다.

반세기동안 竹의 장막속에 가리운 社會主義體制의 中國은 일찍이 開放되어 自由國家와의 교류도 활발하여 民生이 전보다는 向上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내 인상에 관념이 고정된 국가인지라 호기심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일행은 출발하였다. 비록 團體旅行이라 하지만 우리 宗報7호에서 소개된 연변에서의 일가분을 찾아본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北京에 도착하자 연변일가와 통화를 하고 싶어 여러모로 시도했지만 국내 상식만으로는 통화를 할 수 없는 첫 不便을 경험하였다. 우리 일행은 예정대로 中華民航便으로 延吉을 가려고 했는데 예약시간보다 3시간반이나 지체한 후에야 겨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가 새는 비행기에는(나중에 설명하기를 에어컨에서 샌다고 했다) 많은 현지 승객이 있었지만 하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대륙의 유장함인가 했다. 21

데에 통화할 수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아버지는 外出했다며 아들 廉哲氏가 반길래 첫말부터 나는 大韓民國에 사는 坡州廉氏라고 소개하고 6시에 白頭山으로 가야하는데 相面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예상보다는 빨리 승용차를 타고 온 믿음직한 젊은이의 명함에는 延邊國際經濟技術合作公司副總經理(부사장직) 廉哲으로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 느닷없이 한 말만 믿고 그것도 몇 분만에 달려와 나를 만난 그 청년은 파주염씨 내 핏줄의 일가다. 예약한바도 없고 상면해 봐야 큰 목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이 청년은 염씨인 나를 보러 온 것이다. 말없이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모르는 기운이 흐르는 것 같다. 늙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흐려진다. 일행의 곧 출발한다는 독촉이 원망스럽다. 그저 잡은 손에 힘을 더해 가면서 굳건히 살 것을 부탁하고 손에다 宗報 6, 7, 8호 각 2부씩과 월간지를 쥐어주고 再會를 기약하였다.

농을 줄 모르는 역센손을 간신히 풀고 버스에 몸을 실으니 차창 너머로 廉哲이는

白頭山(이곳에서는 長白山이라 함)에 올라 한발넘어 北韓의 우리 땅을 보면서 自由가 制限되고 民生에 허덕이며 분단된채 허황된 世代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독제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도 中國, 월남, 러시아가 그러했듯이 속히 開放되고 힘을 길러 統一하여 번영된 조국의 榮光이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을 기원했다.

스쳐보았지만 中國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넘어 시민들의 기상에는 신념이 있고 절약하며 생산에 매진하는

## — 이복의 일가 —

金日成의 외사촌이자 강성산총리의 사위로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연구실장(대령상당)을 지냈고 주식공 산하 888무역회사 부사장을 지내다 '94년 7월에 귀순한 “강명도”는 그의 저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중앙일보사 간)에서 이복의 파워맨으로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염기순”(60세)은 중앙당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지난 '74년 김정일이 조직부 부부장직에 있을 때 같이 일하면서 그 때 일솜씨를 인정받아 김정일이 조직

지 손모아 幸福하실 것을 빌며 여기 소설가였던 在萬이사가 돌아가시고('95. 12. 7) 아들 종영, 종권과 딸 정삼이가 초상후 문중에 전해온 인사말이 하도 인상적이고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의 후손들도 이같은 마음가짐으로 생활해 주실 것과 일가분들도 유족들에게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옮긴다.

“사람이 사는 건 다단계 로케트같은 거야. 나는 추진부 1단계 로케트라면 너희들은 3단 조종석이야 알아? 이놈아

비서로 올라갈 때 그를 부부장으로 발탁했다.

'80년 10월 노동당 6차 회의때 자격심사위원을 했고 '82년 김일성 훈장을 받았으며 사위 김재일이 '90년도에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할 때 문제가 있자 직접 사위를 18호 관리소에 투옥하였었다. 이를 본 김정일은 “가족혁명화에 앞장서는 인물”로 격찬했다. 염기순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중도파의 핵심인물로 눈여겨 볼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林內 樵夫)

## 편집후기

6년간 문중을 위해 애쓰셨던 在熙前會長님에 이어 '96년 봄 珪澤 새 會長님을 모신 大宗會는 運營基金의 추가모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첫 어려움에 봉착했다. 80 고령의 會長님으로서는 너무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그 저 전종인의 명찰과 성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또 會長님의 성금으로 宗報를 내면서 꾸준히 원고주시는 東右, 秀東, 敏燮 일가분께 감사 드리고 전번 8호에 廣告文을 하나도 신지 않던 마음을 극복일신하며 다시 광고문을 내면서 이번호에 광고 약속해 주신분께 고마운 마음 간절하다. 많은 宗人들이 투고해 주시고 종보의 알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자주 주실 것을 바라며 學文이 짧고 글이 서투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資料수집과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宗報를 편찬하면서 宗人 모두가 옆에 두고 읽어만 주셔도 더할 바 없는 보람으로 생각된다.

(碧江)